

농장에서 구서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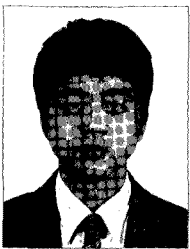
1. 쥐의 종류 및 분포

쥐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생존 능력이 매우 우수해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1,800여종의 쥐가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약 12종의 쥐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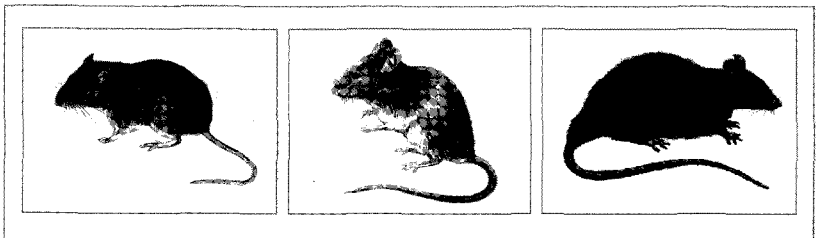
쥐는 크게 집이나 집주변에서 서식하는 가주성쥐와 들판과 같은 야생에서 서식하는 들쥐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내에는 약 8종의 들쥐와 4종의 가주성쥐가 서식하고 있다.

2. 구서의 필요성

쥐는 사료를 먹어 치우거나 오염시키며, 포장재를 파손하고, 각종 시설물들이나 전선 등을 갉아버려 누전에 의한 화재 사고를 유발하



전 상욱 PM
바이엘코리아(주)



<그림 1> 들쥐(좌), 생쥐(중간), 시궁쥐(우)

기도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피해들 중에서도 농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질병의 전파이다. 쥐는 각종 질병들을 농장에 옮기거나, 한 번 발생한 질병이 끊임없이 농장에서 재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쥐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몸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호흡기나 분변, 오줌 등을 통해 전파시키기도 하며, 몸 외부에 묻혀 전파하기도 한다.

3. 쥐의 서식 숫자 추정

쥐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서식하며, 야행성으로 주로 밤에만 활동하므로 내 농장에 얼마나 많은 쥐가 살고 있는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만일 농장에서 쥐를 자주 관찰한다면 쥐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하다.

〈표 1〉 관찰 빈도에 따른 쥐의 서식 밀도 추정 방법

관찰빈도	서식 추정 마리수
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0~100마리
밤에 가끔 눈에 띄	100~500마리
밤에 자주 보이며, 낮에도 가끔 보임	500~1,000마리
낮에도 자주 보임	5,000마리 이상

4. 살서제의 독성

만일 쥐가 자주 목격되는 농장이라면 1~2봉지의 쥐약을 일시적으로 뿌려 놓는 것만으

로는 충분한 구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요즘 시중에서 판매되는 쥐약들은 예전처럼 독극물로 분류될 만큼 독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성이 낮은 만성 저독성 살서제의 경우 고독성 제제에 비해 구서 효과가 뛰어나고 안전성이 높은 반면 더 많은 양의 쥐약을 꾸준히 사용해야지만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독성이 강한 쥐약의 경우 가축이나 애완동물 혹은 사람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저독성 제제들은 쥐가 섭취하는 순간에 몸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므로 쥐약에 중독되어 나중에 몸이 이상해지더라도 무엇 때문에 몸이 이상해졌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따라서 쥐약을 한 번 섭취한 쥐도 지속적으로 쥐약을 섭취하게 되며 다른 무리들도 의심 없이 쥐약을 섭취할 수 있다.

5. 살서제의 작용

쥐약을 섭취한 쥐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감각이 둔해져 잘 활동하지 않는 낮에도 비틀거리며 농장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으며 서식처가 아닌 농장 주변에서 폐사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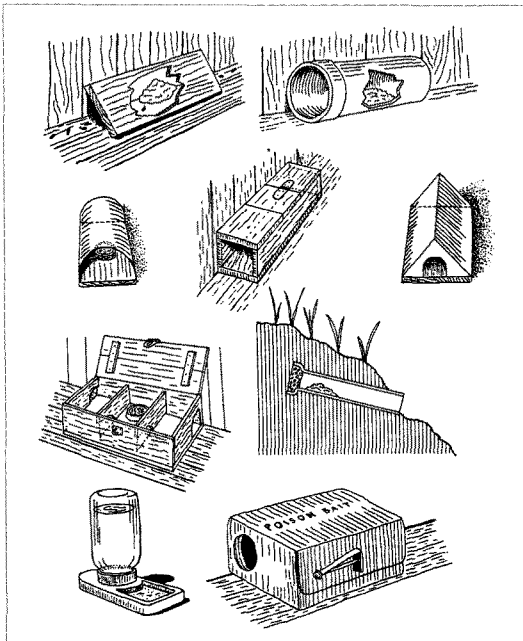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쥐약을 섭취한 쥐가 항상 사람 눈에 잘 띄는 장소에서 죽는 것은 아니며 서식처

나 농장 내·외부 어느 장소에서든지 죽을 수 있으므로 죽은 쥐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구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6. 살서제의 설치

쥐는 밤에 주로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로 시력이 극히 약하고 색맹이기 때문에 색상을 구별할 수 없다. 반면 뛰어난 촉각, 후각, 청각, 미각을 가지고 있어 쥐는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길을 찾을 수 있다.

쥐는 오줌과 생식 기관의 분비물 등을 통해 평소에 자신이 활동하는 영역을 표시해 두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도주 경로를 미리 파악해 둔다. 쥐는 평소에



〈그림 2〉 농장에서의 구서방법

자신이 잘 이용하는 경로를 따라 이동하게 되므로 효과적인 구서를 위해서는 쥐가 잘 다니는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

한 번 쥐약을 설치한 후 수시로 점검하지 않을 경우 만일 쥐가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쥐약이 설치되었다면 구서가 실패할 수 있으므로, 쥐약을 놓은 후에는 쥐약이 없어지거나 쥐가 지나간 흔적 등이 남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시 쥐가 다녀간 흔적이 없다면 쥐약을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해야 한다.

7. 살서제의 다양한 적용

쥐는 입맛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맛이 쓰거나, 상했거나, 곰팡이가 생긴 먹이는 먹지 않으며 오직 신선한 음식물만 섭취한다. 따라서 만일 음식물을 활용하여 독미끼를 만든다면 신선하고 기호성이 좋은 음식물을 미끼로 사용해야 하며, 미끼를 설치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 미끼의 신선도가 떨어지게 되면 쥐가 먹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미끼를 신선한 것으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음식물과 섞어 독미끼를 만드는 경우 처음 1주일 정도는 쥐약을 섞지 않은 채로 음식물만 놓아둔 후 쥐가 잘 먹는지 관찰해야 하며, 쥐가 음식물을 잘 먹는 것이 확인되면 쥐약을 함께 섞어 둔다.

쥐는 냄새에도 민감하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해 손에서 냄새가 날 경우에는 쥐약을 놓을 때 반드시 1회용 비닐

단기간 내에 농장에 살고 있는 쥐의 일부만을 제거할 경우 종족 유지 본능을 자극하여 오히려 활발한 번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구서 작업의 시행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하며 쥐가 많은 경우에는 1~3개월 동안 꾸준히 구서 작업을 시행해야 효과적으로 구서를 실시할 수 있다.

단기간 내에 농장에 살고 있는 쥐의 일부만을 제거할 경우 종족 유지 본능을 자극하여 오히려 활발한 번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구서 작업의 시행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하며 쥐가 많은 경우에는 1~3개월 동안 꾸준히 구서 작업을 시행해야 효과적으로 구서를 실시할 수 있다.



장갑과 같은 깨끗한 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주변에 사료나 기타 음식물이 많은 경우 음식물을 활용한 독미끼법은 실패할 확률이 높으므로 반드시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사료나 음식물은 수시로 치워야 한다.

8. 장기 구서 방안

단기간 내에 농장에 살고 있는 쥐의 일부만을 제거할 경우 종족 유지 본능을 자극하여 오히려 활발한 번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구서 작업의 시행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하며 쥐가 많은 경우에는 1~3개월 동안 꾸준히 구서 작업을 시행해야 효과적으로 구서를 실시할 수 있다.

항상 쥐의 개체수가 다시 늘어나지 않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며, 먹이가 되는 사료나 음식물은 수시로 치워 주는 것이 좋다. 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년에 3~4회 구서 기간을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구서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